

순천시 미래 먹거리 'K-문화콘텐츠 도시' 박차

일류도시기획단 5팀으로 확대...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총괄 노관규 시장 "아날로그에 첨단 디지털 기술 더한 창의적 논의 진행"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시가 미래 먹거리로 내건 'K-문화콘텐츠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순천시는 K-문화콘텐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10일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원박람회를 마치고 단행한 인사에서는 시장 직속 기관인 일류도시기획단을 기존 2팀(일류도시 1팀·2팀)에서 5팀(기획팀, 일류도시 1팀·2팀·3팀·4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일류도시기획단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꾸려졌다.

단장과 팀장들이 함께 일할 부서원을 선택해 책임감을 높이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필요한 업무를 융복합했다.

새롭게 개편한 일류도시기획단은 ▲시장 종합기획 ▲K-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미래전략 사업 발굴 등 시정 전반을 총괄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사 단행 다음 날 일류도시기획단 사전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K-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시작할 순천시의 미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시기별로 수행할 업무를 논의했다.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이 지닌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할 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이 창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시 전체를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존 요소와 새로운 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창의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왼쪽 세번째) 순천시장이 새롭게 개편된 순천시 일류도시기획단과 K-문화콘텐츠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여수시, 2026년까지 여수산단 RE100 지원

정부 공모 선정 143억 확보 기술 개발·실증 사업 추진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RE100' 지원책을 펼친다.

여수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RE100 지원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소 중견기업들은 RE100 제도를 실천하기 힘든 여건이었지만,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여수시는 국비·도비 86억원 등 총사업비 14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7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전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기업 등과 함께 공모에 참여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지원에 나선다. RE100 공급 확대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에는 산업부 공모 사업인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여수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여수국가산단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여수국가산단 전경. <여수시 제공>

국·도비 230억원 포함 총사업비는 400억원 규모이다. 여수국가산단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순환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잇단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 선정이 2050 탄소중립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여수국가산단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 선정은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여수시의 COP33 유치 및 2050탄소중립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시행

월 최고 20만원 임대료 지원

고흥군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월 최고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해택이 대폭 확대된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해준다.

기준에 추진 중인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신청률이 낮고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흥군은 이번에 소득 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고흥군은 이달 말까지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 조곡동 청년회, 경찰청장 표창 순천 조곡동 청년회(회장 김광수·가운데)가 최근 열린 '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치안 거버넌스 부문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조곡동 청년회원 25명은 자발적으로 우범지역 방범 활동과 골목길 환경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백운산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2025년까지 149만ha 규모 유아 숲체험원·롤러썰 등

광양 백운산에 오는 2025년까지 149만ha 규모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된다.

광양시는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복지단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지정된 149만ha 규모 산림복지단지 일원에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광양시는 이미 조성된 산림시설과 앞으로 개장할 시설을 연계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에는 치유의 숲과 목재문화체험장 등이 있다.



산림박물관과 유아숲체험원 조감도. <광양시 제공>

내년 7월에는 '백운산 산림박물관'이 문을 열고, 휴양림 고로쇠 군락지에는 '숲속의 집' 12개동을 신축한다.

산림복지단지 일원에는 '유아 숲체험원' 등 산림 교육시설과 문화·레포츠 시설이 들어선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롤러썰과 숲속 모험시설도 조성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